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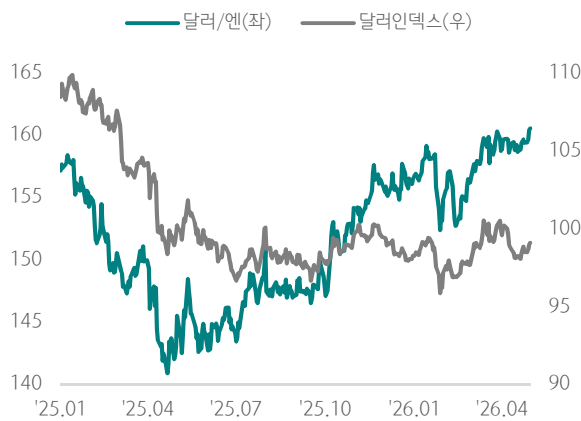
◆ Hana Cross Currency Forecast Letter

◆ '26년 상반기 엔화 환율 수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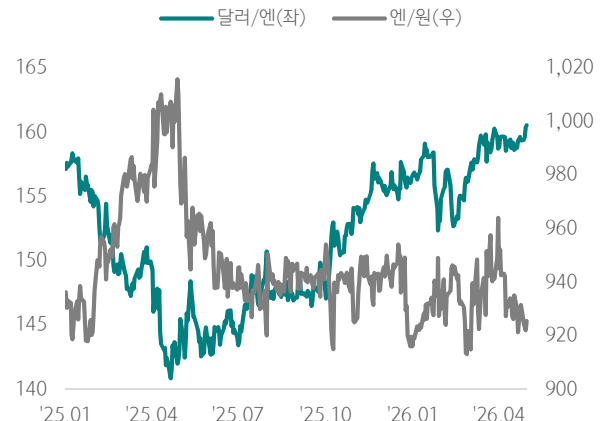
I. '26.1분기 엔화 동향

- 올 초, 엔화는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미-일 금리차 확대 전망 등에 159엔대까지 치솟았으나, 뉴욕 연준의 레이트체크설 등 미-일 공조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152엔대까지 급락.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엔저 용인 발언으로 재차 약세 전환했던 엔화는, 중의원 선거에서의 여당 승리 이후 엔화 매도 포지션 청산 물량이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기도 했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란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부각되며 환율은 다시 158~159엔대에서 등락을 거듭. 최근 BOJ 금리인상 가능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FOMC에 따른 강달러와 미 국채금리 상승에 결국 4.30일 기준 160엔대로 올라섰음

<그림 1> 달러/엔, 엔/원,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은행



자료: Bloomberg, 하나은행

II. 엔화 향후 전망

- BOJ 긴축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로 엔화는 약세 우위의 흐름이 예상
 - 4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전망치가 큰 폭 상향(1.9% → 2.8%) 조정되고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늘어나는 등 연내 추가 긴축 전망은 한층 강화됨. 하지만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엔화가 현 약세 기조를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시점이 구체화되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달러/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선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 당국의 실개입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일시적인 강세를 보일 수는 있음. 그러나 중동 사태 불확실성과 유가 변동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엔화가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

	'26.1Q	'26.2Q ^(F)	'26.3Q ^(F)	'26.4Q ^(F)
달러/엔(단위: 엔)	157	159	158	156
엔/원(단위: 원)	934	925	920	915

*분기별 평균 환율, (F)는 예상치